

교환학생 보고서

소속전공	응용화학과	학 번	201**260	성 명	조연민
주 소		휴대전화		메일주소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대학	MIT	파견학기	1
소요경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SSP/I-card/비자연장/기숙사비 등등 처음에 나가는 비용이 큼니다. 식사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한 끼 식사로 2000원 안으로 사먹을 수도 있으며, 한국식당은 한국가격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넉넉히 쓰면 하루에 10000-15000원(400페소-600페소). 여행자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걸로 해서 1x만원으로 들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은 세부퍼시픽이나 에어아시아가 제일 저렴합니다. 세부퍼시픽은 프로모도 많이 해 기회가 된다면 2달 후의 티켓을 6만원에 살 수도 있습니다. 비자연장은 한 달에 7만5천원 정도(3000페소)이며, 가면 갈수록 싸집니다.				
주거	인트라무로스 내 기숙사에서 필리피노들과 같이 생활했습니다. 이름은 madrigal dormtel 이며, 학교에서 10분 거리이고 한 달에 전기세, 수도세 합해서 15만원, 4인실과 6인실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지만, 시간이 정해져있고 만약 필요하다면 추가비용을 내야합니다. 시설도 다른 기숙사들에 비해 좋은 편입니다. 냉장고는 1층에 하나있습니다. 와이파이비는 1층 로비에서 사용가능하며, 사람들이 많이 쓰면 느려집니다. 방에서는 데이터도 잘 안터집니다. 저는 가격과 편리를 따져 이 기숙사가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룸메이트	저는 6인실을 필리피노들과 같이 썼습니다. 다 저보다 나이가 적기도 했고 부끄러움도 타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면서 친해졌습니다.				
기숙사 내 한국인	제가 살던 곳은 한국인이 5명 내로 있었고, 굳이 같이 생활 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따로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원한다면, 처음 등록할 때 admin에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룸메이트들과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견대학 정보	마푸아 공대는 필리핀에 있는 공대 중에서 1위이며, 외국인 학생이 30퍼 이상이 될 정도로 많습니다. 제 수업에는 뉴기니, 말레이시아, 터키 학생도 봤습니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하며, 따갈로그를 섞어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학교는 ㅁ모양으로 우리학교보다 크지 않으며 south/west/north building 등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학교 정문을 통과할 때는 ID카드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고, 만약 ID카드가 없는 경우는 입구 옆에있는 office room에 들어가 학번을 말하면 팔목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바지는 무릎까지 오는 걸 입어야하며 운동화를 신어야합니다. 학교 내에는 의료시설(clinic)이 따로 있어 아프면 가서 진단서를 받아서 학교 밖에 약국(mercury drug or watsons)을 가서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대학 국제 교류부서	국제 학생을 위한 부서가 학교 건물 내에 따로 있으며, 지금 단장으로 필리핀에 거주하며 마푸아를 다니는 한국분이 계십니다. 가입을 할려면, 간단한 서류양식을 작성하고 가입비를 내면 됩니다. 간단한 레크레이션 활동이 있고, 학생들 간 그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입을 했지만, 활동하지 않고 대부분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어울렸습니다.				
주말 및	주말에는 멀리 여행가는 건 무리고, 마닐라나 근처에 가볼만 한 곳을 인터넷이나 필리핀친구들에게 물어보고 같이 구경 다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필리핀 애들과 간단히 점				

여가활동	심이나 저녁에는 술도 마시고 방학 때는 같이 여행도 다녔습니다. 매일 저녁이나 시간이 따로 날 때는 기숙사에서 영어공부를 했습니다.
멘토 또는 교류도우미	교환학생을 위한 buddy라고 마푸아를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서로 연락하며, 같이 놀고 자기 친구들도 소개시켜주며 초기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공	처음 수강신청 할 때 담당자분이 개설과목을 리스트 뽑아서 주시는데, 듣고 싶은 과목을 체크하고 말하면 담당자분이 일괄처리 해주십니다. 시간표를 서로 확인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쿼터에 열리는 과목을 신청하면 개설되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해당 쿼터라도 개설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다른 쿼터 과목들은 재수강하려는 학생들에 따라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화학과인데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전공과목들은 실제 개설되는 과목들과 다른 것이 많았습니다.
수업 스케줄	다른 나라로 가는 타 교환학생들과 달리 여기는 4쿼터 제이기 때문에 교환학생 6개월 동안 2쿼터를 하고 갑니다. 한 쿼터에 한 학기에 달하는 과목을 들을 수도 있지만, 2쿼터 동안 9학점만 들어도 되기 때문에 저는 3쿼터에 12학점 4쿼터에 6학점을 들었습니다. 한번 수업 듣는데 1시간 반 이며, 따로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1학점 당 1시간 반이기 때문에 전공을 들으면, 일주일 동안 총 4시간 반이며 하루에 다 들을 수도 있으며, 격일로 1시간 반씩 들을 수도 있지만, 이건 교수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 4시간 반 수업이라고 해도 정시에 교수님과 학생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거의 한시간 가량 일찍 마칩니다. 수업 시간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있습니다.
학생할인 관련	필리핀의 대중교통인 지푸니와 택시는 학생할인을 기본적으로 20~30%정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관광지를 다니다보면, 기본적으로 학생 할인을 다 하기 때문에 학생신분증이 있으면,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ISIC카드 활용	여행 다닐 때 관광지에서 학생 할인을 받기위해 ISIC카드를 사용하면, 성인 요금에 비해 30%정도 할인 받을 수 있어서 돈을 많이 절약 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공부	저는 리스닝과 회화에 약해서 필리핀 친구들과 많이 어울려 다니며, 회화 능력을 길렀습니다. 사실 토익 리스닝과 필리피노들이 말하는 영어가 억양이나 발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리스닝 공부는 토익문제집으로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영어공부를 위해 미국드라마를 영어자막이 뜨는 걸로 봤고, 방식은 먼저 자막보고 그다음은 자막을 없앤 후 보며, 모르는 문법이나 안 들리던 부분은 다시 들으면서 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여행	학기 중에는 수업 스케줄이나 과제, 시험공부 때문에 멀리 여행 갈 여력이 없습니다. 두 쿼터 중간에 한 달 동안 방학이 있는데 그때 여행 계획을 세워 친구들과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 애들과 비간/바기오/라구나/잠발레스 등을 같이 여행했습니다. 마닐라 근처에 갈 곳은 인트라무로스/차이나타운/마카티/보니파시오/퀘존 등입니다. 마카티와 보니파시오가 건물이 세련되고 넓으며 쾌적합니다. 차이나타운은 인트라무로스 위 파식강을 건너면 바로 있는 곳인데, 필리피노들도 자기들 끼리 가면 위험한 곳이라, 만약에 가고 싶다면, 가방을 항상 앞으로 메고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통	마닐라는 수도이기도 하지만, 교통량이 매우 많아 도로변에 나가면 매연이 심각해 현지인들이 마스크를 끼거나 손수건으로 코를 막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도 차가 막히며, 저녁 퇴근시간에는 차타고 10분정도 걸리는 거리가 30분이상이 걸릴 정도로 심각합니다. 대중교통은 가장 흔한 지푸니(기본7페소), 페디캡, 트라이시클과 시내, 시외버스, 택시(기본요금 1000원,40페소), 택시와 비슷한 에프엑스 등이 있습니다.

	지푸니와 버스, 에프엑스는 차 유리 앞에 어느 방향이라고 종이에 적혀있어 중간에 내려 달라고 하면 내려주며, 거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지상철로 마닐라와 그 근처만 이용 가능한 LRT와 MRT 등이 있습니다. 지상철은 가격이 싸고, 빠르게 근처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외국인들에게는 위험해서 타고 다닌다면, 항상 가방을 잘 간수 하라고 필리핀 친구들에게 경고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바 위험은 둘째치고 사람이 너무 많아 부대끼며 탔으며 에어컨에선 물이 떨어질 정도로 환경이 쾌적하지 않습니다.
날씨	날씨는 항상 덥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 해가 제일 더운 해였다고 현지 한국인 친구가 말해줬었습니다. 공식적인 필리핀 날씨는 3월까지 건기고 4월부터는 우기이지만, 제가 생활한 1월-6월까지 비오는 날은 손으로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필리핀 기후도 계속 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7월부터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하며, 4월 중순부터 공기가 끈끈해지며, 그 전까지는 아침 저녁은 상쾌한 봄-여름 날씨입니다. 켈 더웠던 날은 대구의 한여름 날씨와 비슷해 낮시간에는 웬만하면 밖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해외인턴	해외인턴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추신	마닐라는 항상 더워서 우산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휴지를 따로 화장실에 나누지 않기 때문에 여행용 화장지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toilet이라고 하지 않고 CR(comfortable room)이라고 줄여서 말하며, 변기 커버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는 뒤에 please나 po(뽀)를 붙이면 됩니다. po는 존댓말로 '~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트라무로스 내는 안전하지만, 그 밖은 항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가방은 앞으로 매시고 저녁 늦게 혼자 다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절도나 위험에 노출된 적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은 친절하고 잘 웃습니다. 다니다보면 여행객인 줄 알고 호객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푸아 ID카드를 걸고 다니면 해결됩니다. 비행기 티켓을 여행사에서 one-way로 샀었는데, 티켓 확인 할 때 여행사에서 사서 그런지 돌아오는 티켓이나, 마닐라를 떠나는 티켓이 있어야 출국 가능하다고 뒤늦게 알았습니다. 만약에 여행사에서 티켓을 사게되면, round-way로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완점	비행기 티켓과 숙소사 그리고 여행자보험은 학교 측에서 미리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환학생 학점인정을 받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마다 처리방식이 다르고 교수님께 직접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교환학생에게는 일괄적으로 전공인정을 가능하게 처리하면 교환학생 지원율과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